

문화적 유산 같이 향유할 시기 왔다

미 「스미소니언」 박물관에서의 인사말

1981년 2월 3일

존경하는 「웹브」 씨, 「휴즈」 차장, 귀빈 여러분!

한·미 두 나라 우호가 2세기째로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 귀 박물관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

양국 우호는 19세기 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 백년이 넘는 세월 동안 통상관계의 한계를 넘어 모든 분야에서 증진 확대되어 왔습니다.

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「한국미술5천년전」이 오는 7월 바로 이 「스미소니언」에서 개최됩니다. 이 전시회를 가능케 한 「리플리」 박사 및 간부 여러분의 배려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, 이 전시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「스미소니언」 직원 여러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.

한국예술은 아시아 예술감각의 역사적 흐름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

한국인은 아시아에서도 독특한 역사와 생활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고유한 언어 및 예술형식을 지닌 단일민족입니다.

이제 미합중국의 국민들이 우리 한국민과 더불어 문화적 유산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.

이런 뜻에서 한국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「스미소니언」에 백만불을 선물한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바입니다. 이 백만불은 「스미소니언」의 일부인 동아시아미술관 건립에 커다란 보탬이 되리라고 믿습니다.

본인은 새로 건립될 이 미술관이 앞으로 한·미 두 나라 국민간의 우호의 상징이 되고 한국의 문화유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데 주요한 공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.

감사합니다.